

주요용어 : 중년 남성, 우울, 삶의 만족도

중년 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 정 인** · 김 계 하*** · 오 순 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71.7세로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중년기란 연령적으로 볼 때 약 40-60세 사이의 삶의 기간으로서 전체 인생주기에서 1/4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년기는 인생주기에서 필연적인 한 주기이며 새로운 자아의 충동, 가족에서의 역할 변화, 외부환경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갈등과 불균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중년기는 풍요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구비한 시기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절정기임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 유지에 따른 독자적 판단의 기회가 많아지고 상당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젊은이와의 경쟁으로 지위에 따른 불안감의 증가도 삶의 질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Elsie, 1982).

남성들에게는 적어도 여성의 폐경기와 비교될 만한 정

서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갑작스런 생물학적인 사건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나 남성들도 여성들이 폐경기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다소 겪게 된다. 즉 우울이나 불안, 짜증, 피로, 자신에 대한 연민 및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불행감 등을 느낀다. 우울은 한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가치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우울한 대상자들은 종종 피로로 기진맥진해지는 것을 호소하며, 실제로나 가상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를 겪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존의 국내 연구문헌에 의하면 일생동안 우울증에 이환될 확률은 남성의 경우 7-12%로 여성(20-25%)에 비하여 낮았으며, 일관성 있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Lee, Ok, Ryff & Marks, 2002; Kim, 2001; Min, 1995). 그러나 Han 등(2002)은 중년 여성이 중년 남성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게 나왔지만 우울증에 대한 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취업여부 변수를 다중회귀 분석에서 포함시키자 성차가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즉, 중년기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수치상의 결과로 인해 남성에 대한 우울의 정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 혜천대학 간호과 겸임교수

***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석사과정

투고일 2003년 2월 4일 심사회의일 2003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03년 4월 19일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Hawkins, Hawkins & Seeley, 1992; Headley, Kelley & Wearing, 1993; Meeks & Murrell, 2001)은 우울과 관련있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는 이것이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거나, 자신의 열망과 성취 사이의 괴리를 평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학 분야에서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달적 위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남성보다 좀 더 높은 건강문제의 이환률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는 그 절대적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직업역할과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년 남성에서 간과되어져 온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알아보고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들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 3) 대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1)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써,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우울 정도를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Beck(1976)의 우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관한 만족과 행복감을 일컫는 것(Meeberg, 1993)으로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등(1976)이 전국적 규모의 표본을 기초로 하여 만든 자가응답식 질문지 Index of Well-being 을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40-59세 사이의 중년 남성이 느끼는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40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남성으로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임의로 추출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1976)이 우울의 인지 행동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Hahn 등(1986)의 제안에 따라 총 63점 중에서 21점을 기준으로 우울군과 정상군을 구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고(Shin, 199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8이었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등(1976)이 만든 자기응답식 질문지 Index of Well-being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루한-재미없는/ 비참한-즐거운/ 쓸모없는-가치있는/ 외로운-우호적인/ 텅 빈-가득찬 / 비판적인-희망적인/ 실망스러운-보람있는/ 운이 없는-행운이 따르는' 등의 8개 문항의 Index of General Affect로서 가장 부정적일 때 1점, 가장 긍정적일 경우는 7점에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하나는 '매우 불만족한-아주 만족'의 1개 문항으로 역시 1점에서 7점까지로 자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의 계산법은 Index of Affect의 경우 가중치 1.0을 주어 구한 평균 점수와 가중치 1.1을 주어 구해진 Life satisfaction의 점수를 합하는 것으로서 범위는 2.1에서 14.7까지이다. Campbell 등(1976)의 연구에서 Index of General Affect 8항목의 Cronbach's α 값은 .89였으며 Life satisfaction과의 상관계수는 .55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이 .96이었으며 Life satisfaction과의 상관계수는 .84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까지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부하여 16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한 최종 14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우울 정도 및 삶의 만족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우울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Range
Age			48.19	4.97	40-59
40~45	43	29.7			
46~49	45	31.0			
50~55	46	31.7			
56~59	11	7.6			
Living status with wife					
with wife	140	96.6			
without wife	2	1.4			
separation by death	1	0.7			
others	2	1.4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6	4.1			
middle school	6	4.1			
high school	74	51.0			
college or over	59	40.7			
Monthly income(10,000won)					
<200	43	29.7			
200~ <300	61	42.1			
300~ <400	26	17.9			
≥400	15	10.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continued)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Range
Job					
office worker	48	33.1			
laborer	8	5.5			
profession	29	20.0			
servicer	50	34.5			
others	10	6.9			
Religion					
christianism	42	29.0			
buddism	36	24.8			
catholicism	13	9.0			
others	54	37.2			
Age of youngest child					
≤10	29	20.0	15.53	5.65	1-28
11~19	82	56.6			
≥20	34	23.4			
Educational level of youngest child					
elementary school or below	39	26.9			
middle school	26	17.9			
high school	32	22.1			
college	41	28.3			
graduate school	7	4.8			
Growth status of youngest child					
satisfied	96	66.2			
moderate	47	32.4			
dissatisfied	2	1.4			
Sexual relationship					
satisfied	60	41.4			
moderate	81	55.9			
dissatisfied	1	0.7			
no response	3	2.1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N=145)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Observed range	Original range
Depression						
normal group	133	91.7	8.98	7.04	0-63	0-63
depressed group	12	8.3				
Life satisfaction						
			10.52	2.66	2.1-14.7	2.1-14.7

2. 우울 정도 및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총 63점 중 평균 8.98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총 14.7점 중 평균 10.52이었다 <Table 2>. 우울 평균 점수 21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우울군은 12명으로 8.3%이었고 정상군은 133명으로 91.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및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월수입에 따른 우울 평균 점수는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2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6.7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59,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11.81로 수입이 많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F=4.251$, $p=.007$).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해 본 결과 각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집단(6.45)은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10.76) 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3.930, p=.000$).

대상자의 연령과 우울 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Table 3> Mean difference of score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on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40~45	8.21±7.41			10.31±2.61		
46~49	8.89±1.03	.381	.767	10.80±2.82	.386	.763
50~55	9.46±6.30			10.56±2.30		
56~59	10.36±9.53			10.01±3.69		
Living status with wife						
with wife	8.82±6.92	-1.434	.154	10.60±2.62	2.363	.019*
others	13.40±9.74			7.47±2.62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below	13.83±2.76			8.68±3.80		
middle school	12.83±7.86	2.364	.074	9.53±3.13	1.340	.264
high school	9.32±7.26			10.64±2.71		
graduate school	7.66±6.44			10.65±2.40		
Monthly income (10,000won)						
<200	11.81±7.90			9.28±3.01		
200~ <300	8.59±7.17	4.251	.007**	10.70±2.39	5.630	.001**
300~ <400	6.77±4.59			11.61±2.36		
≥400	6.27±4.68			11.37±1.89		
Job						
office worker	7.48±6.03			10.91±2.67		
laborer	8.88±5.87	1.772	.138	11.11±1.85	1.116	.351
profession	7.79±6.02			10.78±2.44		
servicer	10.66±8.08			10.10±2.51		
others	11.30±8.39			9.49±4.12		
Religion						
christianism	7.38±5.45			10.96±2.53		
buddism	8.67±6.71	2.631	.052	10.48±2.64	.820	.485
catholicism	6.85±6.23			10.81±2.75		
others	10.94±8.13			10.12±2.76		
Age of youngest child						
≤10	8.17±6.31			10.59±2.58		
11~19	8.32±7.35	.287	.751	10.30±2.73	.744	.477
≥20	8.85±6.99			10.96±2.56		
Educational level of youngest child						
elementary school or below	8.05±6.26			10.48±2.68		
middle school	10.65±9.71			10.47±3.19		
high school	8.69±6.63	.545	.703	10.38±2.77	.078	.989
college	9.05±5.98			10.62±2.31		
graduate school	8.86±8.07			10.91±2.51		
Growth status of youngest child						
satisfied	8.18±6.71	-1.939	.055	10.88±2.37	2.179	.032*
moderate or dissatisfied	10.55±7.48			9.79±3.06		
Sexual relationship						
satisfied	6.45±5.94	-3.930	.000**	11.69±2.16	4.797	.000**
moderate or dissatisfied	10.76±7.24			9.68±2.68		

* $p < .05$, ** $p < .01$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점수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우울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의 유형에 따라서도 우울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서도 중년 남성의 우울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장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장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이 우울 평균 점수 6.45이고,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10.55로 우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Table 3>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10.60)는 그렇지 않은 경우(7.47)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2.363, p=.019$).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11.37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00만원 미만의 집단이 9.28로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30, p=.001$), 사후검증 결과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집단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장상태에 만족하는 경우(10.88)가 그렇지 않은 경우(9.79)보다 삶의 만족도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2.179, p=.032$).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집단(11.69)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집단의 점수(9.6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t=4.797, p=.000$).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으며 대상자들의 학력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 점수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의 종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역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과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668, p=.000$). 즉 중년 남성들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N=145)

	Life satisfaction	
	r	p
Depression	-.668	.000**

**p< .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총 63점 중 평균 8.98로 조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총 14.7점 중 평균 10.52로 중간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만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인 BDI를 사용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우울 점수는 9.63로써 여자 대학생들의 13.27보다 낮았고(Kim, 2001), Shin(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중년 여성들의 우울 평균 점수가 10.2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이나 중년 여성들보다 우울 정도가 다소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비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져 실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심한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남성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 우울 점수의 차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중년 남성들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울의 정도는 21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년 남성의 우울군은 8.3%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군 33.1%(Shin, 199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중년 남성의 우울 분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중년 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월수입에 따른 우울 정도를 보면 월수입이 많을수록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Jho, 2000; Kim, 2001). 중년 여성들의 경우도 경제적 상황과 우울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중년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심리적 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 점수가 낮은데 이러한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으므로 추후에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의료

요원들은 중년 남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성생활에 대해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연령에 따른 우울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Shin(1999)과 Cho, Jung, Choi, Sung과 Park(1997)의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거의 유무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동거는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서 가족의 지지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추가하여 그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우울 정도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우울 점수가 낮은 것을 볼 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학력이 낮은 경우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Cho 등(1997)과 Jho(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업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무직이거나 기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한 Han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직장일은 남자의 일이라는 이분법적 전통적 성역할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녀의 성장상태의 만족 정도에 따른 우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만족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다. 이를 통해, 남성의 결혼생활 중에서 부모-자녀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추측할 수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막내자녀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때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Mannell과 Dupuis(1996)의 연구에서 유배우 노인이 사별노인이나 미혼노인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중년기에 들어서면 남성들은 아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새로운 신희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역시 그러한 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수입이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Kim(1997)의 연구에서 수입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교육과 수입은 삶의 만족도와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Meeks와 Murrell(2001)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고소득의 수입은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Seo(1998)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복지감이 높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즉,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만족감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대상자들은 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는데, Park과 Kim(1999)이 갱년기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성적인 문제는 갱년기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를 저하시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중년 남성의 호르몬 변화가 사회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eo(1998)의 연구에서 40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장년기와 중년기 남성간의 심리적인 복지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Hamarat, Thompson, Zabucky, Steele과 Matheny(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연령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대상자의 학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전문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에서 높게 나타났던 결과(Park, 1996)와는 일치하지 않거나 남성의 직업유형이 심리적인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던 Seo(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종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Hamarat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Duvall과 Miller(1985)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더욱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출가시키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생활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막내자녀의 학력은 대학 졸업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의 자녀는 기쁨과 보상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육비의 과부담 등으로 인한 정서적, 경제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년층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자녀의 존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Hawkins 등(199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Headley 등(1993)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가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Jho(2000)와 Lee와 Choi(1999)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우울과 삶의 질, 우울과 생활만족도간에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에게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학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 까지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 사이의 중년남성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총 63점 중 평균 8.98이며, 삶의 만족도는 총 14.7점 중 평균 10.52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우울군은 8%를 차지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본 결과 월수입($F=4.251, p=.007$)과 성생활($t=-3.930,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동거($t=2.363,$

$p=.019$), 월수입($F=5.630, p=.001$), 자녀의 성장 만족($t=2.179, p=.032$),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t=4.797,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668, p=.000$).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 남성의 우울 정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월수입, 배우자와의 성생활과, 삶의 질은 배우자와의 동거, 월수입, 자녀의 성장만족,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년층 특히 중년 남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연령 집단이므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 남녀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생활에 따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유의한 결과가 중년기 호르몬 변화와도 상관이 있는 것인지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ttle, J. (197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2*, 745-746.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ho, S. S., Jung, S. H., Choi, S., Sung, R. J., & Park, K.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tendency, somatic symptoms and drug use in housewives. *J Korean Acad Fam Med, 18*(5), 490-500.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iddle-aged parents in an empty nest in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 Row, Publishers.
- Elsie, W. (1982). The middle-aged adult. In P. M. Hill & P. Humphrey(Eds.).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life: A Nursing perspective*. New York : Wiley.
- Hahn, H. M., Yum, T. H., Shin, Y. W., Kim, K. H., Yoon, D. J., & Chung, K. J. (1986).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Korea. *Neuropsychiatry*, 25(3), 487-502.
- Hamarat, E., Thompson, D., Zabucky, K. M., Steele, D., & Matheny, K. B. (2001). Perceived stress and coping resource availability as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Exp Aging Res*, 27(2), 181-196.
- Han, G. H., Lee, J. H., Ok, S. H., Ryff, C., & Marks, N. (2002). Gender, Social Roles and Mental Health in Mid-life. *J Korea Gerontol Soc*, 22(2), 209-225.
- Hawkins, W. E., Hawkins, M. J., & Seeley, J. (1992). Stress, health-related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n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 sample of adolescents. *Psychol Rep*, 71(1), 183-186.
- Headley, B. W., Kelley, J., & Wearing, A. J. (1993). Dimensions of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xiety and depression. *Soc Indic Res*, 29, 63-82.
- Jho, M. Y. (200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woma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M. S. (1997).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ental Well-be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7(2), 50-73.
- Kim, O. (2001).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lonelines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 Rep*, 88(2), 521-526.
- Kim, Y. H.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health concepti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of mid-aged Men. *The Korean Nurse*, 36(5), 41-44.
- Lee, K. E., & Choi, E. S. (1999). The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Kwangwondo. *J Korean Acad of Women's Health Nurs*, 5(3), 299-312.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 Clin Psychol*, 10(1), 98-113.
- Mannell, R. 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
- Meeberg, G. A. (1993). Quality of life: Concept analysis. *J Adv Nurs*, 18(1), 32-38.
- Meeks, S., & Murrell, S. A. (2001).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mediated by negative affect. *J Aging Health*, 13(1), 92-119.
- Min, S. K. (1995). *Modern Psychiatry*. Seoul: Ilchokak.
- Park, M. S. (1996). The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men and women.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4(2), 19-33.
- Park, S. A., & Kim, M. A. (1999). The sexual life in climacteric woman. *J Korean Acad of Women's Health Nurs*, 5(2), 179-192
- Seo, J. A. (1998). *The effects of famil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in the early/middle adulthood*.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Shin, K. R. (1999). A study on depression among mid-aged women. *J Korean Acad of Adult Nurs*, 11(4), 858-870.

- Abstract -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Lee, Jung-In · Kim, Kye-Ha** · Oh, Soon-Ha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n.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Data collection was done between Oct. 28 and Nov. 28 on the 145 middle aged man. **Result:** The degree of depression of the subjects was 8.98 and life satisfaction was 10.52 on the average. About 8% of the subjects was included in the depression group.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the nursing program for qualitative life of middle aged man.

Key words : Middle-aged Man,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 Doctoral cours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in master's program,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